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黃 振 洙

老人扶養에 따른 家族負擔感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Family Members' Stress due to the
Support for the Aged

1998 年 8 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福 祉 行 政 學 科

社 會 福 祉 專 攻

鄭 秀 珍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黃振洙

老人扶養에 따른 家族負擔感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Family Members' Stress due to the
Support for the Aged

위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8 年 8 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福祉行政學科

社會福祉專攻

鄭 秀 珍

鄭秀珍의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1998年 8 月 日

審査委員長_____ (印)

審査委員_____ (印)

審査委員_____ (印)

目 次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한계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4
제 1 절 노인 문제에 관한 이론적 접근	4
1. 노인의 개념	4
2. 노인문제의 제요인	6
제 2 절 부양부담에 관한 이론적 접근	9
1. 노인부양의 정의	9
2. 노인부양의 형태	10
3. 부양부담의 개념 및 영역	14
4.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7
제 3 장 연구방법	22
제 1 절 연구가설	22
제 2 절 조사대상 및 조사도구	22
제 4 장 결과 및 논의	25
제 1 절 일반적 특성	26
제 2 절 부양자의 변인에 따른 부담감	31
제 3 절 부양부담의 결정요인의 상관관계	38
제 5 장 결론	42
참고문헌	46
영문초록	48
부 록 : 설문지	51

표 목 차

〈표-1〉 설문지 구성내용	24
〈표-2〉 설문지의 신뢰성	25
〈표-3〉 성 별	26
〈표-4〉 연 령	27
〈표-5〉 학 력	27
〈표-6〉 직 업	28
〈표-7〉 종 교	28
〈표-8〉 월수입	29
〈표-9〉 노인과 의 관계	29
〈표-10〉 노인 부양기간	30
〈표-11〉 피부양자의 성별	30
〈표-12〉 노인의 불편정도	31
〈표-13〉 20대 여성의 영역별 응답현황	33
〈표-14〉 40대 여성의 영역별 응답현황	34
〈표-15〉 자녀의 영역별 응답현황	36
〈표-16〉 며느리의 영역별 응답현황	37
〈표-17〉 20대 여성의 영역별 상관관계 분석	39
〈표-18〉 40대 여성의 영역별 상관관계 분석	39
〈표-19〉 자녀의 영역별 상관관계 분석	40
〈표-20〉 며느리의 영역별 상관관계 분석	40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현대는 사회경제 및 의·과학기술의 발달과 영양보급 및 공중보건위생의 향상, 그리고 제반 생활 여건의 개선으로 인간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사망률은 감소하여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자연적으로 전체인구의 노령구조를 변화시켰다. 타 연령층에 비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되면서 고령화 사회를 촉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말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6.6%, 2000년경에는 7.1%, 2020년에는 13.2%로 증가하여 선진국과 동일한 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¹⁾

현대사회는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을 통하여 가족은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가족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가족의식의 면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아래 있는 노인들은 빈곤과 질병과 고독, 그리고 역할상실 등의 고통에 시달리게 되며 또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나 적응력 역시 감퇴되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기능 수행이 약화된 노인은 물질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많은 부분을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1)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사업지침」, 1998, p.1.

이러한 경우 서구사회의 노인들은 공적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공적부양체계가 미흡한 우리 나라의 경우 노인부양은 사적부양체계인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전통적 가치관인 효를 토대로 한 가족부양을 근간으로 하고,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새롭게 형성된 가치에 의한 사회적 부양의 요구가 더욱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노부모 부양의 책임을 여전히 사적부양 즉, 가족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실정인 것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족은 노인을 위한 주된 부양부담자로서 1차적 책임을 수행해 왔다. 한국인들은 과거로부터 부모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효행을 자녀의 중요한 덕목으로 존중해 온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전통적 사회구조로부터 첨단 산업사회를 향한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구조적 변화를 급격하게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단계에서 노인의 위치는 여러 면에서 불안정하게 되고, 가족이 노부모를 보살피 드리는 정도도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의식은 부양부담감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역으로 “효”에 대한 책임감은 그 자체로 부담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 “효”를 인류의 근본으로 삼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의 우리 사회는, 노인의 수명 연장으로 인한 높은 부양의존도, 노부모와의 동거부양이 권장되는 사회적 분위기, 자식으로서 책임과 의무라는 관념,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약화되는 부양의식은 노부모 부양 역할이 성인자녀에게 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문제화될 노인문제와 그 부

양에 관한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문제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요청에 의해 '노인부양에 따른 가족부담감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를 택하여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이 노인 부양에 따르는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부담감을 측정하고 그 유형에 관련된 원인, 특히 효의식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나아가 노인부양자의 부담감의 수준을 낮추고 원만한 가족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한계

본 연구에서 범위는 1998년 5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로 시간적 범위를 삼았으며 공간적 범위의 설정은 일반화를 위해 전국의 노인가족을 중심으로 분석해야 하나 시간·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서울특별시'만을 범위로 정했다. 대상적 범위에 있어서는 65세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부양자로 연구대상을 정하여 노인부양에 따른 부담감을 측정하였다.

연구의 한계로는 대상을 무작위표본 추출하였기 때문에 모집단을 적절히 대표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며, 대상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 충분한 통계학적 신뢰도가 약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문항간의 선후관계를 측정할 수 없는 설문형식이기 때문에 문항간의 보다 깊은 상관관계를 분석함에는 한계가 있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노인 문제에 관한 이론적 접근

1. 노인의 개념

노인이란 '노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 국가나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배경과 전통, 관습은 물론 개인에게 주어지는 생활환경에 따라 노화과정의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노인의 개념을 한 마디로 정확하게 정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인간이 생활과정의 최종단계에 돌입하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제측면에서 그 능력이나 적응성이 퇴화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이로 인하여 사회 기능 수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시기를 노년기라 하고 노년기의 사람을 노인이라 한다.²⁾

일반적으로 노인에게는 신체적으로 노화현상, 즉 신체의 소모로 기능의 마멸손상이 일어나고, 심리적으로 권태와 고독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사회적으로는 지위와 역할구조의 변화로 그가 지금까지 차지했던 가장 권이나 사회생활 영역이 축소되며, 경제적으로도 고용생산면에서의 후퇴로 임금 중심의 사회적응에 있어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2) 장인협, 「사회복지학개론」,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p.289.

Leonard Z. Breen에 의하면 노인이란, 첫째, 생리적 및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퇴화기에 있는 사람, 둘째, 심리적인 면에서 개성의 기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셋째, 사회적 변화에 따라 사회적 관계가 과거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³⁾

또한 1951년 7월 미국 세인트루이스 시에서 열렸던 국제노년학회에서는 노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⁴⁾

- ① 환경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없는 자체 조직에서 결함을 가진 사람
- ② 생활자체가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상태에 있는 사람
- ③ 인체의 기관, 조직, 기능에 쇠퇴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 ④ 생활의 적응성이 정신적으로 결여되어 가고 있는 사람
- ⑤ 인체의 조직 및 기능 저장의 소모로 적응 감퇴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

이와는 달리 사회과학적 조사 연구의 편의, 정책 및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쓰이는 노인의 개념으로는 개인의 자각에 의한 노인, 사회적 역할 상실에 의한 노인, 역연령에 의한 노인, 기능적 연령에 의한 노인 등이 있다.⁵⁾

위에서 열거한 주장을 종합해 보면 노인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노화

3) 노대호,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청주시내 대학생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4.

4) 최순남,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서울 : 홍익재, 1989), p.29.

5) 장인협·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pp.45-47.

의 복합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노인은 '생리적 및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역할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제도적·행정적 개념에서는 노인복지법에서 추정하고 있는 65세 이상자를 노인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활동에서 은퇴하고 육체적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는 65세 이상자⁶⁾를 노인이라고 본 논문에서는 규정하였다.

2. 노인 문제의 제요인

1) 경제적 문제

노인들이 가정이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답게 남은 삶을 살아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립을 통해 주체성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⁷⁾

현대사회가 개인주의적인 생활로 변화됨에 따라서 공간적인 독립을 요구하는 노인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고 은퇴후의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하여 이러한 욕구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노후생활에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정년 후 보통 20년내외를 살아야 하는데 이러한 장기간의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스스로 경제력을 비축해 두어야 하는데 현재 국내복지경제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

6) 임춘식,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서울 : 유평출판사, 1991), pp.39-40.

7) 노대호, "전계논문", p.6.

에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에 경제적으로 빈곤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이 특히 빈곤한 원인은 조기 은퇴, 연금 및 사회보장제도의 미흡, 자녀 양육으로 인한 과다 지출이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경제력이 약해진 노인을 부양해야 할 세대들의 가치관의 변화로 노인부양 의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노인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복지적인 차원에서 도와야 할 것이다.

2) 가족문제

가족은 개인과 사회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개인에 대하여는 개인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고, 사회에 대하여는 하나의 기본적인 사회단위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산업화는 가족제도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로 노인층과 젊은 세대 사이의 가치관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산업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핵가족, 소가족 현상은 동거 및 부양 의식과 노인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경제적인 빈곤과 더불어서 노인문제의 또 다른 원인이 되는 것이다.

특히 대도시에 많은 저임금, 저소득생활자, 무주택 가구를 증가시켜 가족의 분화가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노인가구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대해 노인복지법 제 3 조에서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해

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경로헌장에도 “노인은 가정에서 전통의 미덕을 살려 자손의 극진한 봉양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은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은 없다고 보여진다.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인부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3) 건강문제

노인의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의 문제는 노령화 초기 단계에 와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노화 현상은 30대 이후의 소화기능 저하, 40대이후의 퇴행성 질환 등은 부적절한 식사, 육체 및 정신적 자극, 각종 감염, 중독 등의 종합 결과라고 생각되고 있다.

또한 노년기의 청각장애는 대인관계와 타인과의 의사 소통에 장애를 일으켜 인지적 능력의 쇠퇴와 개인 생활의 만족도까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노인은 신경이나 근육의 반응시간이 길어져, 행동이나 작업이 느려지고, 세심한 일을 하지 못하며, 이에 따라 사고 위험성이 커진다.

급속한 경제 성장과 과학기술의 발달은 충분한 영양 섭취와 의료 혜택을 입게 하여 수명은 연장되었으나 핵가족화의 가속은 과중한 노동을 계속하게 하며, 환경 파괴로 인한 공해, 식품 첨가물에 의한 병원성 질환의 증가, 사회 부적응에 따른 정신질환등은 타인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의존성 노인의 수를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⁸⁾

8) 노대호, “전계논문”, pp.9-10.

4) 심리적인 문제

노인이 가정에서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여 지위 확보를 하지 못하였을 때 노인문제는 발단이 된다. 따라서 노인문제의 시작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부부 관계나 부부·자녀 관계는 친밀한 관계로 발전된 반면 노부모와의 관계는 소원해지게 되었고 노인들은 직계 가족 내에서조차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끼며 생활하게 된다.

노인의 가족 관계에서의 고립과 소외 현상은 노인들의 일탈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노인들이 느끼고 있는 고독과 소외감은 그 자체가 불안과 절망으로 연결되어 근본적으로 삶에 대한 환멸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다.⁹⁾ 그러므로 노년에 고독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들과의 생활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제2절 부양 부담에 관한 이론적 접근

1. 노인 부양의 정의

국어사전에 의하면¹⁰⁾ 부양이란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보

9) “상계논문”, p.11.

10) 「국어대사전」, (서울 : 민중서림, 1994), p.1,586.

아 좁이라고 나오고 있다. 이 부양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좁은 의미의 부양은 인간이 어떻게 그 생활을 유지해 가며, 어떻게 생존을 보장받고 있는가와 같은 일상적인 평범한 문제로 여긴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부양은 유년, 노령, 실업과 같은 자연적 또는 사회적 원인으로, 스스로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문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 보는 것이다.

또한 노인부양은 부양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공적 부양은 주로 사회보장제도의 틀 속에서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따라서 가족 또는 본인 외의 외부 집단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양의 형태를 지칭한다. 사적 부양은 가족에 의해 받는 부양의 형태를 의미한다.

2. 노인 부양의 형태

노인 부양의 형태는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신체적 부양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는데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¹¹⁾

1) 경제적 부양

경제적 부양은 노인이 필요로 하는 급전이나 물질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노후 생활의 안정에 제 일차적 조건이 된다.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11) 노대호, “전계논문”, pp.11-15. · 최순남,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한신논문집 제12집, 한신대학교출판부, 1995, pp.504-506.

노인들은 퇴직 후의 수입의 절감 또는 무수입으로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인들의 경제생활이 불안하고 어려운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체로 우리 나라의 부모는 자녀의 양육 및 교육, 결혼 등에 모든 재력을 거의 다 충당하고, 노후를 위해 아무런 비축도 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이 무렵 퇴직의 시기를 맞아 경제력의 상실로 심한 곤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기 정년제의 실시 및 노후보장제도의 불비라는 제도적 차원의 문제까지 겹쳐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65세이상의 노인 중 노후 대책이 전혀 없는 노인이 94%를 차지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문제는 심각성을 더하게 될 것이다.¹²⁾ 그리고 노인을 부양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적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며 전통적인 가족부양 형태가 유지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도 가족부양으로부터 사회부양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법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민법은, 직계가족인 자녀가 노인 부양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민법 제 994조)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경제능력이 없어서 부모를 부양할 수 없을 경우에만, 국가에서 부양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 부양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족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부양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은 전통 사회와 비교하여, 양적인 감소는 있었을지라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12) 임춘식,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사회과학연구 제7집, 한남대학교 사회연구소, 1998, p.165.

2) 정서적 부양

노인의 정서적 부양이란 심리적으로 변화된 노인의 고독과 불안감을 경감시키고, 노후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정서적, 인격적 욕구의 충족을 제공하는 부양을 의미한다.¹³⁾ 즉, 가정 내에서는 자녀의 부양에 대한 대가로, 사회에서는 사회 발전에 공헌한 대가로 노인을 우대하여 노년생활을 보다 안락하고 평화롭게 여생을 보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최근에 정서적 부양에 있어 큰 문제점은 노인가구에 있어서 독거노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 독거노인은 가족들의 방문을 통하여 정서적 부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노인과 자식 사이에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게된다. 그러나 집을 따로 장만할 수 없는 형편의 노인세대나 가족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유년기부터 개인적 독립 생활이 습성화된 서구 노인들은 고독이나 소외감을 이겨내는 의식이 어느 정도의 여유를 보일 것이나, 한국 노인들은 전통적 가족주의가 몸에 배어 있으며, 신·구가치가 우리 사회에 혼재되어 있어서 부모가 전통적 가치관에 따라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과 실제로 받게 되는 대우 사이에 차질이 크게 되므로, 그 소외감이나 고독이 심각하게 작용함을 의미한다.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 기능중 정서적 만족을 위한 원조의 필요성은 동거, 별거 또는 어떤 자녀가 부양하는지를 불문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계속 존재하게 될 것이다.

13) 최순남, “전계논문”, p.504.

3) 신체적 부양

노화란 인간의 신체적 기관의 기능이 감퇴되고, 통합능력이 결여되어 제대로 적응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노후에 경제적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 못지 않게 더욱 심각한 것은 신체적 노쇠와 병환이다. 노년기에 있어서는 노화 과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신체적 기능의 저하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의 저하로 인하여 건강상의 욕구는 점차 증가하는 반면 욕구 충족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과 기회는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¹⁴⁾

신체적 부양은 노인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식사하기, 목욕하기, 앉기, 옷갈아 입히기, 화장실 이용 등의 병약하거나 노쇠한 노인들의 보살핌과 가벼운 집안일 하기, 시장보기, 외출하기 등의 시중을 제공하는 부양을 말한다.

신체적 부양은 노인의 신체적인 원조와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전통 사회에서는 노부모가 장남과 동거하면서 부양을 받았기 때문에 노부모의 병간호, 살림 돌보기 등은 모두 잘 이루어졌다. 그러나 도시화, 핵가족화로 부모와 자녀간의 물리적인 분가 현상이 크게 증가하고, 신체적 부양의 기능은 약화되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노인의 신체적 부양을 동거하고 있는 자녀가 전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동거 자녀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따라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신체적 부

14) 노대호, “전계논문”, p.14.

양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종종 지역사회내의 복지기관에서 서비스나 자원봉사자에 의해 신체적 부양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다.

3. 부양부담의 개념 및 영역

1) 부담감의 개념

부담감의 일반적인 개념은 그 어원을 구약성서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무거운 짐을 견디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그 이후 노동의 짐이나 죄, 슬픔과 감정, 경제적 부채의 의미로 사용되어와 현재도 유사하게 ‘고통스럽고 걱정스러운 어떤 것’의 의미를 지녔다.¹⁵⁾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부담감에 관한 연구의 체계적인 정립의 효시라 할 수 있는 Zarit, Reeve 와 Peterson은 노인성 치매환자를 돌보면서 안게 되는 전반적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부정적인 문제라고 정의하였다. 그 이후 Poulshock과 Deimling은 어떤 간호 상황에 대한 극히 개략적이고 주관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결국 부담감은 주관적인 해석이 중요한 다차원적인 개념이라고 하였다.¹⁶⁾

15) 박희순, “와상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부담감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94, p.5.

16) “상계논문”, p.6.

2) 부양부담의 개념

부양부담이란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노인을 부양하면서 겪는 신체적, 심리적 또는 정서적, 사회적, 재정적 어려움을 의미하며, 가족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혀졌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험으로 인한 다양한 영향을 부양부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¹⁷⁾

현재 부양부담과 동의어로 사용되거나 함께 쓰이는 용어로는 스트레스, 긴장, 일상적 부양과업 수행상의 애로, 부양의 영향 등이 있다.

Lazarus의 스트레스-대처 이론에 입각하여 부양부담을 개념화하면 부양부담이란 스트레스 유발인자에 대한 부양자의 인지적 평가결과 또는 부양의 결과로 나타난 가족의 위기나 부양자의 긴장이라고 했고, Gatz는 부양부담을 부양의 결과로 규정하고 이를 스트레스 유발인자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뿐만이 아니라 부양의 결과로 나타나는 실질적인 생활상의 변화까지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Aneshensel등은 노인부양의 결과로 나타나는 우울증, 화, 불안, 신체적 긴장의 악화, 부양역할의 포기 등을 부양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George와 Gwyther는 부양부담을 ‘가족이 장애노인을 부양하면서 겪는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재정적 문제’라고 개념화하였다.¹⁸⁾

결국 선행연구들을 통해 대부분의 학자들이 부양자가 경험하는 부양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사회생활상의 제약,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악

17) 박명희, “뇌졸중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10.

18) 권중돈, “한국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 사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pp25-26.

화와 같은 부양자 삶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영향에 관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서 부양부담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부양부담의 영역

본 연구는 노인 부양가족의 부양과 이에 따르는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알아보는 연구이기 때문에 부양의 주체 측면에서 그 의미가 사적 부양임을 밝혀 두며 사적 부양을 중심으로 부양부담의 영역을 살펴보면 영역을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경제적 부양부담, 건강상의 부양부담, 심리적 부양부담, 사회활동상의 제약 영역으로 구분된다.¹⁹⁾

이러한 부담은 가족의 경제적 부양부담,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건강문제에도 심각하게 작용한다. 노인 수발자의 대부분은 신체적 질환을 갖고 있으며, 특히 노인이 신체적, 기능적인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수발자의 66%가 요통, 고혈압, 관절염, 소화기 질환 등의 신체적 질환을 한가지 이상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가족의 건강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²⁰⁾

또한 노인 부양에 대해 느끼는 가족의 심리적 부담은 노인 부양에 대한 부양자의 인식으로 인해 야기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노인 부양의 책임을 가족에게 특히 장남에게 미루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심적 부담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와 함께 가족의 노인 부양으로 인한 사회활동상의 제약은 개인의

19) 박희성, “노인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가족의 노인 부양부담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9.

20) 박희순, “전계논문”, p.9.

시간부족과 자유의 제한으로 표현된다. 노인 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사회 활동상의 제약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는 전체 조사 가족 중 10.6%가 노인 부양으로 인해 행동의 부자유를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²¹⁾

가족의 노인 부양부담에 대한 각 영역을 살펴본 결과 가족의 노인 부양부담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의 노인 부양부담은 선행 연구에서 가족과 노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즉 가족과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주로 부양자가 누구인가와 부양자의 성별, 부양자의 직업유무, 부양자의 건강상태, 노인의 건강상태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²⁾

첫째로 노인을 부양하는 주수발자가 누구인가와 관련하여 Horowitz와 Shindelman은 노인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다른 친척과 비교해서 주수발자가 배우자일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다.

둘째로 부양자의 성별과 관련해서 Zarit는 그의 동료들과의 연구에서 가족의 성별로 나누어 볼 때 여성이 남성보다 노인 부양에 있어 더 많은 부담을 경험함을 밝혀낸 바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 노인 수발

21) 이가옥 외,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pp.229-230.

22) 박희성, “전계논문”, pp.10-11.

뿐만 아니라 가사 활동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셋째로 Lang과 Brody는 여성의 부양책임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함을 강조하였다. 즉, 취업한 중년 여성들은 부모에 대한 보호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보호를 위한 과업이 좀더 어려워지고 가족과 함께 부모를 부양할 필요성을 더 느낀다는 것이다.

넷째로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 및 부양부담이 부양자 연령의 증가에 따라 오히려 더욱 더 증가함으로써 부양자는 부양에 따른 스트레스와 각종 질병을 얻게 되며, 이는 노인에 대한 가족 부양문제의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은 그 자체가 부양자의 건강과 관련 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노인을 돌보는 것이 상당한 체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부양자의 건강상태가 부양자 부담정도의 예측 인자로 가정되기 때문이다. 위에서 설명한 요소들을 최해경의 이론을 토대로 하여 다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²³⁾

1) 객관적 스트레스 요인

객관적 스트레스 요인이란 노인의 일상생활동작 의존 정도가 부양 부담감을 발생시킬 때를 말한다. 즉, 부양자는 노인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일상생활동작(옷입기, 식사, 배변, 외출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노인의 일상생활의존도는 부양부담을 유발시키

23) "상계논문", p.12.

는 객관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

그러나 노인의 일상생활 동작의존도가 부양자로 하여금 부양부담을 느끼게 하는 객관적 스트레스 유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부양부담을 유발시키는 유일한 요인이 아니며 또한 가장 중요한 요인도 아니라고 볼 수 있다.

2) 부양자의 변화

가족 내의 노약자를 부양하는 역할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이나 성인 딸, 혹은 며느리가 부양자인 경우가 절대적인데 특히, 노인이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나 연로하여 부양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자녀 중에서도 며느리나 성인 딸이 주 부양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나라는 서구사회와는 달리 전통적으로 딸이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나 사회가 변화하면서 부모부양에 대한 성별책임의식이 변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형편이 되는 경우 딸이 노인을 모시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3) 부양에 대한 태도

이것은 자녀 책임감의 동기에 관한 것으로서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성이 다른 가족성원에 대한 책임성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나 스트레스로서 인지하는 경우에 부양부담이 증가한다고 보았으며 부양에 대한 책임성이 직접적으로 부양부담을 감소시키거나 부양부담을 지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기도 한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자녀 책임감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부양동기를 들 수 있는데 부양동기란 자녀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노인을 모시는 이유를 말한다. 물론 이를 이타성 측면에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자녀간의 특수한 관계로 본 “효” 이념에 근거할 때 설명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4) 생활 스트레스

부양자가 생활전반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성 사건들은 부양활동이나 부양부담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30년 간의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신체적, 정신적 문제의 주 요인이며 이것이 성인자녀의 부양활동에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혀졌다. 물론 스트레스성 사건이 항상 부정적인 결과만을 유발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부양자가 가족 갈등을 비롯한 생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높은 정도의 우울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²⁴⁾

5) 환경적 요인

사회적 서비스 이용정도와 비공식적 지원을 환경적 요인으로 규정하고 부양부담과의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밝혀내려는 것이다. 공식적인 지지체계 활용과 부양자의 정신건강간의 상관관계 연구(Gilhooly 1984), 지지집단(support group)활동이 부양자의 부양부담과 우울의 수준을 경감시켜 준다는 Kahan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1985), 개인상담과 가족치료가 부양부담을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회사업적 프로그램이라는

24) 박명희, “전계논문”, pp.23-24.

Whitlatch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1991)등이 그 좋은 예이다. 즉 비공식적 지원이란 가족이나 친척, 친구나 이웃의 방문이나 도움을 말하는데 Cohen의 완충이론에 의하면²⁵⁾ 이러한 비공식적 지지체계가 부양자의 부양부담을 완화시키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25) 박명희, “전계논문”, p.26.

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가설

- 1) 부양자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부담감의 정도는 다를 것이다.
- 2) 한국의 전통적 효의식은 핵가족 구조하에서 부양부담감을 경감시켜 줄 것이다.

제2절 조사대상 및 조사도구

1. 조사대상

조사 대상자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부양자로 선정하여, 2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80부의 설문지를 조사하여 252부가 회수(회수율 90%)되었으며, 1998년 5월 1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이론적 배경과 기존연구를 통하여 조사

도구의 배경과 근거를 설정하였다. 부양의식과 부양부담에 관한 선행 조사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김경신²⁶⁾, 박희성²⁷⁾, 이경자²⁸⁾, 이영자·김태현²⁹⁾, 박희순³⁰⁾이 사용한 자료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한 범위에서 문항들을 적절히 선택하고 분석·종합하여 작성하였다.

(1) 부양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과 부담감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부양자에 관하여 7가지 변인으로 나누어 설문을 구성하였다.

(2) 피부양자의 특성에 관해서는 성별, 부양기간, 불편정도로 나누어 설문구성하였다.

(3) 부담감의 측정을 위해 본문에서 설명된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라 5가지 변수로 나누어 총 19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4) 설문구성에서 환경적 요인은 배제하고, 가족과 가정 내에서 부담 유발요인에 국한시켰는데 구체적인 설문지 구성내용은 <표-1>과 같다.

26) 김경신, “부양 및 효에 관한 노인의 가치관 연구”, 1997, pp.56-60.

27) 박희성, “노인 주간보호서비스 이용가족의 노인 부양부담 연구”, 1996, pp.74-79.

28) 이경자, “치매노인의 간호문제와 돌보는 가족원의 부담감에 관한 연구”, 1995, pp.35-38.

29) 이영자·김태현, “노인부양자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인지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1992, pp.5-7.

30) 박희순, “와상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1994, pp.66-73.

〈표-1〉 설문지 구성내용

영역	항 목
정서적 측면	1. 노인은 실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을 내게 요구한다. 2. 노인은 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3. 노인을 앞으로 계속 오랫동안 돌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4. 노인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할지 모르겠다.
경제적 측면	5. 우리가정의 형편은 노인을 돌보는데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 6. 노인에게 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사회적 측면	7. 노인 때문에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다. 8. 노인이 있기 때문에 내 친구가 방문하는 것이 불편하다. 9. 부양의 어려움으로 결혼생활의 회의를 느낀다. 10. 노인의 부양 때문에 내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 11. 노인을 부양하다 보니 나의 계획에 차질을 가져온다.
신체적 측면	12. 노인을 부양하다 보니 식욕이 없어졌다. 13. 부양으로 인해 나는 육체적으로 지쳤다. 14. 부양으로 나는 만성적인 병을 얻었다. (고혈압, 위궤양, 심장병 등)
부양에 대한 태도	15. 지금 좀더 노인에게 잘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미안하다. 16. 나는 노인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17. 노인을 부양하거나 간호하는데 보람을 느낀다. 18.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노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19. 노인이 몸이 불편하기 전에 노인에게 못해준 것이 마음에 걸린다.

제4장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여 신뢰성 분석, 빈도분석, 교차통계분석, 상관관계 분석으로 하였으며, 신뢰성은 측정도구의 정확성이나 정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의존가능성, 안정성, 일치성, 예측가능성, 그리고 정확성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Cronbach's alpha (α)를 사용하였으며, Nunnally는 탐색적인 연구 분야에서는 Cronbach's alpha 값이 0.60 이상이면 충분하고,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0.80, 그리고 중요한 결정이 요구되는 응용연구 분야에서는 0.90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문항의 특성상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신뢰성을 측정하였다.

〈표-2〉 설문지의 신뢰성

문 항	전체적인 신뢰성 : 0.7570
1 ~ 4	0.6320
5 ~ 6	0.5596
7 ~ 11	0.8733
12 ~ 14	0.5433
15 ~ 19	0.7403

제1절 일반적 특성

1. 부양자의 특성

성별분포는 <표-3>과 같이 총응답자 252명중 남성이 28.9%이고, 여성이 71.1%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다. 여성 부양자가 남성 부양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 나라의 가족구조에서 노인의 주부양자는 여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표-3〉 성 별

구 분	빈도(명)	비율(%)
남	73	28.9
여	179	71.1
계	252	100.0

그리고 연령분포를 <표-4>에서 보면 40세~49세가 40.1%로 가장 많았으며 30~39세가 35.7%로 그 다음으로 노인부양자의 연령층이 주로 중년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4〉 연 령

구 분	성 별				계	
	남		여			
	N	%	N	%	N	%
20 ~ 29세	6	2.4	31	12.3	37	14.7
30 ~ 39세	30	11.9	60	23.8	90	35.7
40 ~ 49세	30	11.9	71	28.2	101	40.1
50세 이상	7	2.8	17	6.7	24	9.5
계	73	29.0	179	71.0	252	100.0

학력에 있어서는 <표-5>와 같이 47.6%가 대졸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으며, 고졸학력이 41.7% 중졸학력이 9.5%였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고졸이상이 89.3%를 차지하고 있다.

〈표-5〉 학 력

구 분	빈 도(명)	비율(%)
중 졸	24	9.5
고 졸	105	41.7
대 졸	99	39.3
대학원	21	8.3
무응답	3	1.2
계	252	100.0

직업별 분포는 <표-6>과 같이 주부가 전체의 3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회사원이 27.0%, 전문직 20.6%, 자영업 17.5%로 나타났다.

<표-6> 직 업

구 분	빈도(명)	비율(%)
주 부	80	31.7
회사원	68	27.0
전문직	52	20.6
자영업	44	17.5
무 직	6	2.4
무응답	2	0.8
계	252	100.0

종교는 <표-7>과 같이 기독교가 27.4%, 불교가 19.4%, 천주교가 16.7% 순으로 전체 63.5%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표-7> 종 교

구 분	빈도(명)	비율(%)
기 독 교	69	27.4
천 주 교	42	16.7
불 교	49	19.4
종교없음	92	36.5
계	252	100.0

노인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표-8>과 같이 31.3%(100만원 이상에서 150만원 미만)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8> 월수입

구 분	빈도(명)	비율(%)
50만원 미만	12	4.8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41	16.2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	79	31.3
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	69	27.4
200만원 이상	39	15.5
무응답	12	4.8
계	252	100.0

노인과의 관계는 <표-9>와 같이 며느리가 57.5%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37.3% 손자·손녀 4.0%, 배우자가 1.2%로 나타났다.

<표-9> 노인과의 관계

구 분	빈도(명)	비율(%)
배우자	3	1.2
자 녀	94	37.3
며느리	145	57.5
손자·손녀	10	4.0
계	252	100.0

노인의 부양기간은 <표-10>과 같이 37개월 이상 74.2%로 가장 많았다.

<표-10> 노인 부양기간

구 분	빈도(명)	비율(%)
6개월 이내	26	10.3
7개월 ~ 12개월	14	5.5
13개월 ~ 24개월	12	4.8
25개월 ~ 36개월	13	5.2
37개월 이상	187	74.2
계	252	100.0

2. 피부양자의 특성

피부양자인 노인의 성별은 <표-11>과 같이 남성이 15.9%, 여성이 59.1%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여성 모두 부양하는 경우도 25.0%로 나타났다.

<표-11> 피부양자의 성별

구 분	빈도(명)	비율(%)
남	40	15.9
여	149	59.1
남·여	63	25.0
계	252	100.0

노인의 불편정도에 관한 응답에서는 <표-12>와 같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가 67.9%, ‘어려움이 있다’ 20.2%,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가 7.5%로 나타났으며 무응답인 경우는 4.4%로 부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예측된다.

<표-12> 노인의 불편정도

구 분	빈도(명)	비율(%)
조금어려움이 있다.	171	67.9
어려움이 있다.	51	20.2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19	7.5
무응답	11	4.4
계	252	100.0

제2절 부양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부담감 분석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담감의 분석은 변인들과 문항간의 교차통계 분석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7가지 변인 중에서 ‘연령’과 ‘관계’ 두 가지 변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부양부담의 사회적 측면(생활스트레스)’과 ‘부양에 대한 태도(효의식)’를 먼저 연령에 대해서는 모집단에서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을 비교 집단으로 선정하여 두 집단간의 생활스트레스 영역과 효의식에 관한 응답률을 문항별로 비교 분석한다.

그리고 노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며느리’와 ‘자녀’를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여 역시 생활스트레스 영역과 효의식에 관한 반응을 문항별로 비교 분석한다.

먼저 연령에 대해서는 모집단에서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여 전체적인 부양부담감을 파악 측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노인과 관계에 대해서는 ‘며느리’와 ‘자녀’를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여 역시 전체적인 부양부담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어서 연령과 관계에 따른 두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부양부담의 사회적 영역(생활 스트레스)’와 ‘부양에 관한 태도(효의식)’ 두 영역을 문항에 따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부양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부담감을 측정하고자 한다.

20대 여성은 <표-13>와 같이 부양부담을 전체적인 영역에서 즉, 어느 특정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표 -13> 20대 여성의 영역별 응답현황

문 항	1		2		3		4		5		무응답	
	N	%	N	%	N	%	N	%	N	%	N	%
정서적 측면	3	9.7	15	48.4	5	16.1	8	25.8	-	-	-	-
	3	9.7	13	41.9	8	25.8	5	16.1	2	6.5	-	-
	3	9.7	19	61.3	4	12.9	4	12.9	1	3.2	-	-
	2	6.5	13	41.9	7	22.6	9	29.0	-	-	-	-
경제적 측면	3	9.7	17	54.8	7	22.6	4	12.9	-	-	-	-
	-	-	13	41.9	9	29.0	9	29.0	-	-	-	-
사회적 측면	1	3.2	5	16.1	4	12.9	20	64.5	1	3.2	-	-
	-	-	7	22.6	4	12.9	18	58.1	2	6.5	-	-
	4	12.9	11	35.5	6	19.4	8	25.8	-	-	2	6.5
	2	6.5	5	16.1	9	29.0	14	45.2	1	3.2	-	-
	2	6.5	4	12.9	6	19.4	15	48.4	4	12.9	-	-
신체적 측면	7	22.6	13	41.9	8	25.8	3	9.7	-	-	-	-
	2	6.5	16	51.6	5	16.1	8	25.8	-	-	-	-
	10	32.3	15	48.4	2	6.5	3	9.7	1	3.2	-	-
부양에 대한 태도	-	-	5	16.1	5	16.1	18	58.1	3	9.7	-	-
	-	-	4	12.9	14	45.2	12	38.7	1	3.2	-	-
	-	-	7	22.6	15	48.4	9	29.0	-	-	-	-
	-	-	3	9.7	9	29.0	19	61.3	-	-	-	-
	-	-	5	16.1	8	25.8	14	45.2	3	9.7	-	-

40대 여성은 <표-14>과 같이 사회적 측면에서 느끼는 부담감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부양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높은 효의식이 나타났다.

<표-14> 40대 여성의 영역별 응답 현황

문항	1		2		3		4		5		무응답	
	N	%	N	%	N	%	N	%	N	%	N	%
정서적 측면	12	16.9	25	35.2	20	28.2	13	18.3	1	1.4	-	-
	9	12.7	22	31.0	19	26.8	19	26.8	1	1.4	1	1.4
	26	36.6	28	39.4	8	11.3	7	9.9	2	2.8	-	-
	16	22.5	27	38.0	15	21.1	11	15.5	-	-	2	2.8
경제적 측면	16	22.5	28	39.4	20	28.2	5	7.0	1	1.4	1	1.4
	16	22.5	30	42.3	18	25.4	6	8.5	-	-	1	1.4
사회적 측면	16	22.5	22	31.0	11	15.5	18	25.4	4	5.6	-	-
	10	14.1	14	19.7	18	25.4	24	33.8	5	7.0	-	-
	17	23.9	33	46.5	10	14.1	9	12.7	1	1.4	1	1.4
	11	15.5	25	35.2	13	18.3	19	26.8	3	4.2	-	-
	11	15.5	21	29.6	15	21.1	20	28.2	4	5.6	-	-
신체적 측면	24	33.8	27	38.0	13	18.3	6	8.5	1	1.4	-	-
	18	25.4	26	36.6	15	21.1	7	9.9	5	7.0	-	-
	33	46.5	20	28.2	5	7.0	11	15.5	2	2.8	-	-
부양에 대한 태도	1	1.4	2	2.8	19	26.8	41	57.7	8	11.3	-	-
	1	1.4	11	15.5	21	29.6	30	42.3	8	11.3	-	-
	2	2.8	8	11.3	29	40.8	29	40.9	1	1.4	2	2.8
	-	-	6	8.5	22	31.0	38	53.5	4	5.6	1	1.4
	-	-	4	5.6	20	28.2	35	49.3	10	14.1	2	2.8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의 사회적 측면과 부양에 대한 태도에서의 응답결과는 20대 여성보다 40대 여성이 사회적 측면에서 노인을 부양하면서 느끼는 부양부담이 더 컸으며, 부양에 대한 태도에서도 40대 여성이 20대 여성보다 더 높은 효의식을 나타냈다.

따라서, 기성세대인 40대 여성이 신세대 20대 여성보다 사회적 측면에서 생활 스트레스를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양에 대한 태도에서도 20대 여성보다 더 높은 효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표-15〉 자녀의 영역별 응답현황

문항	1		2		3		4		5		무응답	
	N	%	N	%	N	%	N	%	N	%	N	%
정서적 측면	24	25.5	34	36.2	21	22.3	14	14.9	-	-	1	1.1
	17	18.1	36	38.3	23	24.5	16	17	2	2.1	-	-
	40	42.6	39	41.5	7	7.4	8	8.5	-	-	-	-
	14	14.9	44	46.8	20	21.3	13	13.8	2	2.1	1	1.1
경제적 측면	15	16.0	45	47.9	26	27.7	8	8.5	-	-	-	-
	26	27.7	42	44.7	19	20.2	6	6.4	1	1.1	-	-
사회적 측면	34	36.2	29	30.9	16	17.0	15	16.0	-	-	-	-
	29	30.9	33	35.1	14	14.9	18	19.1	-	-	-	-
	33	35.1	44	46.8	12	12.8	2	2.1	-	-	3	3.2
	28	29.8	35	37.2	17	18.1	11	11.7	3	3.2	-	-
	22	23.4	35	37.2	19	20.2	17	18.1	1	1.1	-	-
신체적 측면	51	54.3	36	38.3	5	5.3	2	2.1	-	-	-	-
	37	39.4	42	44.7	11	11.7	4	4.3	-	-	-	-
	58	61.7	32	34.0	2	2.1	2	2.1	-	-	-	-
부양에 대한 태도	-	-	3	3.2	9	9.6	62	66.0	20	21.3	-	-
	-	-	4	4.3	24	25.5	52	55.3	13	13.8	1	1.1
	-	-	2	2.1	33	35.1	47	50.0	11	11.7	1	1.1
	1	1.1	4	4.3	9	9.6	63	67.0	17	18.1	-	-
	-	-	3	3.2	8	8.5	53	56.4	28	29.8	2	2.1

자녀와 며느리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는 <표-15>과 <표-16>에서와 같이 다른 영역에 비하여 사회적 측면에서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고 부양에 대한 태도에서는 효의식이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자녀의 경우보다는 며느리의 입장에서 느끼는 부담이 더 컸으며 부담을 느끼지만 효의식의 작용으로 부담감을 감소시키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6〉 며느리의 영역별 응답 현황

문항	1		2		3		4		5		무응답	
	N	%	N	%	N	%	N	%	N	%	N	%
정서적 측면	25	17.4	56	38.9	32	22.2	28	19.4	3	2.1	-	-
	22	15.3	48	33.3	40	27.8	29	20.1	4	2.8	1	0.7
	50	34.7	60	41.7	15	10.4	15	10.4	4	2.8	-	-
	29	20.1	67	46.5	23	16.0	23	16.0	2	1.4	-	-
경제적 측면	35	24.3	60	41.7	34	23.6	12	8.3	2	1.4	1	0.7
	30	20.8	63	43.8	30	20.8	19	13.2	1	0.7	1	0.7
사회적 측면	33	22.9	38	26.4	22	15.3	44	30.6	7	4.9	-	-
	14	9.7	22	15.3	31	21.5	61	42.4	15	10.4	1	0.7
	34	23.6	62	43.1	22	15.3	23	16.0	2	1.4	1	0.7
	22	15.3	42	29.2	36	25.0	40	27.8	4	2.8	-	-
	20	13.9	38	26.4	28	19.4	50	34.7	8	5.6	-	-
신체적 측면	41	28.5	55	38.2	32	22.2	15	10.4	1	0.7	-	-
	30	20.8	56	38.9	29	20.1	23	16.0	5	3.5	1	0.7
	61	42.4	45	31.3	12	8.3	23	16.0	3	2.1	-	-
부양에 대한 태도	1	0.7	9	6.3	29	20.1	86	59.7	19	13.2	-	-
	2	1.4	22	15.3	54	37.5	55	38.2	11	7.6	-	-
	3	2.1	22	15.3	59	41	56	38.9	1	0.7	3	2.1
	-	-	16	11.1	49	34.0	70	48.6	7	4.9	2	1.4
	1	0.7	16	11.1	36	25.0	68	47.2	18	12.5	5	3.5

제3절 부양부담의 결정요인의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분석은 연변수들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다. 즉 한 변수가 다른 변수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고자 할 때 이용하는 분석기법이다.

변수간의 관련성을 연구하기 위해 좌표상에 수치들을 나타낼 수 있으나, 요약된 지수를 계산하여 관련성의 정도를 계량화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보편적으로 자주 이용되는 척도가 바로 피어슨의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r)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 척도를 사용하였다.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계수(r)의 절대값이 1.00이면 완전한 상관관계, .90이면 매우 높은 상관관계, .70~.80이면 상관관계가 높다고 말할 수 있으며, .50~.60이면 보통의 상관관계, 그리고 .40이하면 약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부양부담의 결정요인간 상관관계 분석도 앞의 인구통계학적 분석처럼 연령과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빈도분석을 기초로 하여 20대 여성과 40대 여성 그리고 자녀와 며느리가 부양부담의 사회적 측면(생활 스트레스)영역에 '그렇다(4)'와 '매우 그렇다(5)'에 답한 응답자와 (효의식)영역에 '그렇다(4)'와 '매우 그렇다(5)'라고 답한 응답율을 토대로 부양부담과 효의식을 측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집단이 다른 영역에 보인 반응에 대한 상관관계를 영역별로 분

석하며 특히, 부담감과 효의식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표-17> 20대 여성의 영역별 상관관계분석

	TOQA	TOQB	TOQC	TOQD
TOQE	0.001	0.101	-0.015	-0.330**

** P< 0.01

주) TOQA : 정서적 측면, TOQB : 경제적 측면, TOQC : 사회적 측면,
TOQD : 신체적 측면, TOQE : 부양에 대한 태도

20대 여성 중 <표-17>와 같이 사회적 측면의 부담감이 큰 사람은 정서적 측면과 신체적인 측면에도 어느 정도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20대 여성중 부양에 대한 태도는 나머지 영역과의 관계에서 약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18> 40대 여성의 영역별 상관관계분석

	TOQA	TOQB	TOQC	TOQD
TOQE	-0.317**	-0.127	-0.193	-0.300*

* P< 0.05 ** P< 0.01

주) TOQA : 정서적 측면, TOQB : 경제적 측면, TOQC : 사회적 측면,
TOQD : 신체적 측면, TOQE : 부양에 대한 태도

40대 여성 중 <표-18>과 같이 사회적 측면의 부담감이 큰 사람은 정서적 측면과 신체적인 측면에서의 부담감이 강하게 나타났고, 20대 여성과는

다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20대 여성 중 부양에 대한 태도는 다른 영역과 약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20대 여성보다는 더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19> 자녀의 영역별 상관관계분석

	TOQA	TOQB	TOQC	TOQD
TOQE	-0.440**	-0.339**	-0.321**	-0.303**

** P< 0.01

주) TOQA : 정서적 측면, TOQB : 경제적 측면, TOQC : 사회적 측면,
TOQD : 신체적 측면, TOQE : 부양에 대한 태도

<표-19>과 같이 부양노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의 사회적 측면과 부양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다른 영역과의 상관관계를 강하게 느끼는 사람은 정서적 측면, 신체적 측면에서 보통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부양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나머지 모든 영역에서 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20> 며느리의 영역별 상관관계분석

	TOQA	TOQB	TOQC	TOQD
TOQE	-0.119	-0.044	-0.148	-0.194*

* P< 0.05

주) TOQA : 정서적 측면, TOQB : 경제적 측면, TOQC : 사회적 측면,
TOQD : 신체적 측면, TOQE : 부양에 대한 태도

<표-20>와 같이 부양노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며느리의 사회적 측면과 부양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며느리의 경우 사회적 측면에서 부담감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은 정서적, 신체적 측면에서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관관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양에 대한 태도와 다른 영역과는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급변하는 현대화 도시화로 가치관, 의식, 생활양식이 서구화되고 전통 사회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노인부양에 있어서 '효의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으며 부양태도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성세대인 40대여성의 경우 신세대인 20대 여성보다 사회적측면의 생활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효의식도 그 만큼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효의식으로써 생활스트레스를 완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효의식은 그것 자체가 노인을 부양해야한다는 부담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면서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의 부담과 다른 측면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경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결 론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사회구조적 변화, 약화되는 부양의식속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계속적으로 문제시될 노인문제와 그 부양에 따른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의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부담감을 측정하고 그 유형에 관련된 원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노인부양자의 부담감의 수준을 낮추고 원만한 가족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였으며, 조사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 28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느끼는 생활스트레스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스트레스보다 더 부양자에게 많은 부담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부양부담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부담감을 느꼈으며 연령에서는 21~29세, 30~39세가 타연령층보다 더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고, 학력은 고졸이상 대졸자가, 직업에서는 주부가 부담을 더 느끼고 있으며 노인과의 관계에서는 며느리가 다른 가족의 경우보다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 노인과의 관계에 관

한 변인은 11번 문항에서 나머지 문항과의 차이를 보였다. 주부의 경우 생활 중에 노인을 부양함으로써 계획에 차질을 가져왔다고 80명중에 37.5%가 응답하였고, 노인과의 관계에서는 며느리가 144명중에 43.7%가 응답하였다. 따라서 주부나 며느리는 개인적인 욕구충족이나 사회적 교류 및 참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의 핵가족화의 사회구조 속에서도 전통적 “효의식”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을 부양하는데 있어 부양에 대한 태도, 자세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인구학적변인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월수입, 부양노인과의 관계에 관계없이 응답자의 대부분이 ‘그렇다’에 답하고 있어 가족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도 노인 부양에 대한 자세나 태도 면에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부양의식이나 효사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부양자의 부담은 부양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며느리의 경우가 그러하였다. 이들이 가정내에서 노인의 부양을 담당하는 주부양자이고, 가족 구성원중에서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양은 가정내에서 노인과 어느 특정가족구성원과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주부양자와 더불어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족구성원들은 주부양자에 대해 정신적, 신체적인 배려와 역할 분담으로 부양노인과 주부양자인 주부와 며느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가족간의 심리적 유대감을 갖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리하여 바람직한

가족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둘째, 노인부양자는 노인을 부양함에 있어 개인적, 사회적 생활에서 겪는 생활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부양으로 개인적, 사회적 제한을 받거나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의 노인가족은 지역사회내 복지기관의 주선으로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신체적 부양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낮 동안 돌보아 주고 야간에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과 기관간의 연계로 재가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복지서비스가 보편화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의 서비스는 신체적 부담만을 줄이는데 있다. 부양자의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서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리고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노인부양자의 부양부담을 줄여 주는 서비스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핵가족화가 되면서 파생된 효의식 측면의 역기능과 부작용을 극복하고,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녀에게 주어지는 과중한 부양책임을 사회복지기관 등의 공적 프로그램을 통해 분담할 수 있다면 노인을 부양함에 있어서 부담감을 줄이고 자녀 역시 효의식을 잃지 않으면서 부모 부양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도 노인이 자신의 가정에서 가족 및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의 사회적 자원으로 복지욕구를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지역서비스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복지서

비스와 신변보호에 필요한 복지욕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노인부양자 역시 이로 인하여 생활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 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로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가족 및 사회에 대해 의존성 역시 증가시킨다. 그러나, 가족구조 및 사회환경의 변화, 생활양식,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노인부양의 환경은 전통사회에 비하여 악화되고 있다. 현대에 와서는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따라서 부양자의 부담감은 더욱 더 무거워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족부양에서 사회적 부양으로의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복지제도와 서비스는 서구의 영향을 받아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과 기능을 보여주지 못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노부모를 자녀가 돌보아야 하는 전통적인 부양의식과 효사상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의 현실과 문화적 특성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부양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간이나 단기보호서비스와 함께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노인과 노인부양자 및 가족구성원에게 사회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단행본 및 논문>

- 권중돈, “한국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 사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
- 김경S신, “부양 및 효에 관한 노인의 가치관 연구”, 한국노년학 Vol. 6, 한국노년학회, 1997.
- 권복순·이경은, “노부모 부양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Vol. 31, 한국사회복지학회, 1997.
- 노대호, “노인 부양에 관한 연구 - 청주시내 대학생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 노인복지정책연구, 「각국 노인의 가족부양현황과 과제」, 추계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7.
- 박명희, “뇌졸중 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 박희성, “노인 주간보호서비스 이용가족의 노인 부양부담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박희순, “와상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 배옥현·홍상욱, “거동불편 노인가족의 가족 자원과 부담감이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Vol. 15, 한국노년학회, 1995.
- 보건복지부, “1997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 1998.
- 엄윤애, “우리나라 노인부양 복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 이경자, “치매노인의 간호문제와 돌보는 가족원의 부담감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Vol. 15, 한국노년학회, 1995.
- 이영자·김태현, “노인부양자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인지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Vol. 12, 한국노년학회, 1992.
- 임춘식,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사회과학연구 제7집, 한남대학교 사회연구소, 1998, p.165.
- 임춘식,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서울 : 유풍출판사, 1991.
- 장경남, “치매노인의 보호관리 실태와 사회적 부양”,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 장인협, 「사회복지학 개론」,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 장인협·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 최순남,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한신논문집 제12집, 한신대학교출판부, 1995.
- 최순남,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서울 : 홍익재, 1989.
- 최혜경·김윤정, “한국 치매노인 부양상황에서의 스트레스 과정”, 한국노년학 Vol. 17, 한국노년학회, 1997.

ABSTRACT

A Study on the Family Members' Stress due to the Support for the Aged

Chung, Soo-jin
Major of Social Welfare
Dept.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Administration
Han Sung Universty

This study deals with the family members' stress due to the support for the aged, while conducting surve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ess and filial piety in Korea. In the modern society characterized by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the life expectancy has increased remarkably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made it possible for people to have balanced diet and better living conditions. So, in the advanced countries in particular, the ratio of the aged is increasing and leads aged society faster than

ever.

In this sense in Korea, too,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have operated to change the structure of society, especially, the family relationships which have been based on the strong tradition of filial piety for the family members. With the emergence of the nuclear family structure, the increasing number of the aged in urban life suffer difficulties such as economic, social, emotional and physical problems which force the aged dependent on the caregiver. The aged need help both by their family and the public welfare program.

The advanced Western societies have developed a better program for the welfare of the aged. However, Korea still depends on the private family support for the aged while the consciousness of filial piety becomes weaker in modern society than in the pre-modern society.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points:

- 1). In the industrialized society, daily life stress is the biggest reason for the stress among economic, physical and emotional cause.
- 2) With respect of age, people between 20 to 29 and 30 to 39

suffer from stress more than the other age people. For educational background, people with college education feel strong stress. Considering the duty of the caretaker in relationship with the aged, the daughter-in-law feels more stress, too.

3) Even in the nuclear family structure, the consciousness of filial piety still exist strongly. For this reason, filial piety can function in two opposite ways. First, one is to relieve the stress. The other is to be a main cause of the stress.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노인부양에 따른 가족부담감에 관
한 연구”로서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유형
과 그 해결 방안에 관한 기초자료로 쓰여질 것
입니다.

본 설문지의 내용에는 맞고 틀림이 없으며, 자료
또한 익명으로 통계처리 되어 학문적 목적으로
만 사용될 것으로 개인적인 사항은 타인에게 알
려질 염려가 없으므로 한 항목도 빠짐없이 솔직
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8년 5월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지도교수		황진수
원생		정수진

※ 다음의 항목은 통계적 자료에 필요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① 21~29세 ② 30~40세 ③ 41~51세 ④ 51세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① 중졸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 이상
4. 귀하의 직업은?
① 주부 ② 주부 ③ 회사원 ④ 전문직 ⑤ 자영업 ⑥ 무직
5. 귀하의 종교는?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종교 없음
6. 월수입은?
① 50만원 미만 ②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④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⑤ 200만원 이상
7. 부양노인과의 관계는?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며느리 ④ 손자·손녀

※ 부양노인의 기초자료

1. 노인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③ 남·여
2. 노인을 돌본 기간은?
① 6개월 이내 ② 7개월~12개월 ③ 13개월~24개월
④ 24개월~36개월 ⑤ 37개월 이상
3. 노인의 불편정도는?
① 조금 어려움이 있다 ② 어려움이 있다 ③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 다음은 당신이 노인을 부양하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고 평소 당신이 겪는 어려움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여 (V)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내 용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노인은 실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을 내게 요구한다					
2	노인은 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3	노인을 앞으로 계속 오랫동안 돌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4	노인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할지 모르겠다					
5	우리가정의 형편은 노인을 돌보는데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					
6	노인에게 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7	노인 때문에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다					
8	노인이 있기 때문에 내 친구가 방문하는 것이 불편하다					
9	부양의 어려움으로 결혼생활의 희의를 느낀다					
10	노인의 부양 때문에 내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					
11	노인을 부양하다 보니 나의 계획에 차질을 가져온다					
12	노인을 부양하다 보니 식욕이 없어졌다					
13	부양으로 인해 나는 육체적으로 지쳤다					
14	부양으로 나는 만성적인 병을 얻었다.(고혈압, 위궤양, 심장병 등)					
15	지금 좀더 노인에게 잘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미안하다					
16	나는 노인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17	노인을 부양하거나 간호하는데 보람을 느낀다					
18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노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19	노인이 몸이 불편하기 전에 노인에게 못해준 것이 마음에 걸린다					